

평창군시설관리공단, 가평 수해 복구 자원봉사 나서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8.21 13:44

희망새미봉사단 15명 참여...도로 정비·토사 제거 등 지원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지역에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농경지 침수와 도로 유실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현리 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최순철 이사장을 비롯한 ‘희망새미봉사단’ 단원 15명은 도로변 토사 및 잔해 제거, 침수 도로 정비, 주민 안전 통행로 확보, 배수로 정비 등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공단은 사전에 가평군자원봉사센터, 조종면 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 긴급 복구 지역을 선정하고 복구 장비를 지원받는 등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최순철 공단 이사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수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